

# 정인보의 <오천 년간 조선의 얼>을 통해 본 '얼'의 사상과 '국어'의 사상의 관계\*

김병문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 Abstract

Kim, Byungmoon. 2021. "Ideas of Eol(Soul) and Gugeo(National Language) Expressed in Joseon's Eol of 5,000 Year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9(3), 29~59. This article starts with a thought that the ideas of 'Eol'(soul) and 'Gugeo'(national language) presuppose each other. Given that ancient history was the place of struggle in which the desires of a modern nation-state were projected, national language was an important tool of the struggle for nationalist historians such as Shin Chaeho and Jeong Inbo, who attempted to reveal the reality of ancient history. At the same time, the history of national language could only be established based on national history. In order to take a critical look at this entangling of 'national history' and 'national language', this article analyzed Jeong Inbo's "Joseon's Eol of 5,000 Years". Chapter 2 examines the specific aspects of the linguistic methodology Jeong Inbo used in "Joseon's Eol of 5,000 Years" and its status in his research on Korean history. Chapter 3 reviews Jeong Inbo's approach to describing ancient history, which introduced a linguistic methodology, in the academic context of the time and show that it was an important tendency of 'Joseonhak'(Korean Studies) that sought to eventually find "Something true to Korea." Chapter 4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deas of 'Eol' and 'Gugeo', which originated from 'Guksu' and 'Gukon'.

**Keywords:** Eol(soul), Gugeo(national language), Guksu(nationality), Gukon(spirit of nation), National History, National Language, Ancient History, Jeong Inbo

---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581).

1.

1935 1월 1 터 듨 8월 28 까 282 걸쳐  
 << >> <오천 일> .1) 건  
 래 5,000 저온 ‘얼’ 찾 탐  
 , 5,000 (通史) 터  
 러 , 신 까 룬 겠 . 당  
 황 장  
 ,  
 왜곡 응 ,2) 신채호  
 식 반 평 왔 .3) 신채호  
 란 처 러 점,  
 삼 멸망  
 삼 ‘ 삼

- 1) 이 연재본은 해방 후 서울신문사에서 《조선사연구》라는 제목으로 1946년과 1947년에 상권과 하권으로 간행되었으며, 1983년에는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한 《담원 정인보 전집》(전 6권의 3권과 4권으로 역시 《조선사연구》라는 제목하에 출간되었다. 근래에는 우리역사연구재단에서 앞서의 판본들의 오류를 수정하고 현대어로 번역한 문성제의 역주본을 역시 《조선사연구》라는 제목으로 2012년(상권), 2013년(하권)에 출간하였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오천 년간 조선의 일>은 가장 마지막에 출판된 문성제의 역주본을 토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앞서의 판본을 별도로 제시하기로 한다.
- 2) 정인보는 해방 후에 서울신문사에서 간행한 《조선사연구》의 말미에 <부언(附言)>을 덧붙였는데, 이 글의 서두 부분에 일본인들이 퍼낸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보고 분통이 터져 “이건 가만히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용강(龍岡)에서 발견된 점제비(粘蟬碑)를 두고 평양 부근을 낙랑군의 치소(治所)로 단정하는 일본인 학자들이 태도를 보고 “일본 학자들의 조선사에 대한 고증이라는 것이 저들의 총독 정책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그들의 음모를 언젠지 쟁그리 부셔 버리리라고 다짐하게 되었다.”며 역사를 연구하던 사람이 아닌 자신이 조선사 연구에 나서게 된 동기를 서술하고 있다(정인보 2013: 775~776).
- 3) 정인보는 위의 각주 2)에서 언급한 <부언>에서 일본인들의 역사 왜곡에 분개하고 나서 그 후에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 원고가 들어왔을 때 그의 안목에 탄복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만열(2008)은 정인보의 고대사 연구의 동기와 배경을 ‘그의 가계(家系)와 양명학 연구, 일제 식민주의 사학에 대한 분노, 신채호의 저술과 인식(眼識)’의 영향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밖에 정인보의 조선사 연구에 관해서는 홍이섭(1968), 천관우(1986), 이완재(1993), 오영교(1994), 국학연구원(2005), 류시현(201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점 신 호  
 식 퀘 점 킨 .  
 신채호  
 . 앞  
 매 했 점 신채호  
 . 신채호 저 《 신 (讀史新論)》(1908)<sup>4)</sup>  
 《 (朝鮮上古史)》(1931)<sup>5)</sup> 큰 차  
 . 1920 《 초  
 (朝鮮史研究草)》<sup>6)</sup> 터 <  
 >  
 디 ‘ 식’  
 . 7) 즉 , ,  
 빌려  
 뜻 려 했던 래 복  
 , 몽골 활  
 .  
 예킨 ‘평 (平壤)’ 땅 드넓 뜻 ‘벌’ 큰 킨  
 음 뜻 ‘ ’ , ‘벌 ’ 래  
 칭 ‘ 류(沸流), 낙랑  
 (樂浪), (不耐), (國內)’ 달 했 ‘ (夫餘)’  
 신 ‘ (羅)’ 벌 ‘벌(伐)’ 찾  
 ( 2012: 136~138). 려 쳐 신 까

4)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 8월 27일에서 12월 13일까지 연재되었다.  
 5) 《조선일보》에 1931년 6월 10일에서 10월 14일까지 연재되었다. 연재 당시의 제목은 <조선사>였으나 해방 후 1948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될 때의 제목인 《조선상고사》로 부르는 학계들의 관행을 따랐다.  
 6) 《동아일보》에 1925년 10월 20일에서 1926년 3월 16일까지 연재되었다.  
 7)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병문(2020나) 참조.

‘벌’ 증 ,  
 령 5,000 저 왔 ‘얼’ 찾  
 오랜 더 온 ‘ ’  
 능 될 터 .  
 글 ‘ (國粹)’ ‘ 혼(國魂)’ ‘얼’ ‘ ’  
 식 .  
 욕망 ‘ 쟁 장’ 8) 허 려  
 했던 신채호 ‘ ’ 쟁 긴  
 . ‘ ’ , 즉 ‘ (國語史)’ 쟁  
 결 ‘ ’ , ‘ ’ 될 .  
 ‘ ’ ‘ ’ , 살피 글  
 <오천 얼> 삼 . 2장  
 <오천 얼>  
 차 검 겠 .  
 3장 입 당  
 검 결 ‘ ’ 찾  
 ‘ ’ , 살피 겠 . 4장 ‘ ’  
 ‘ 혼’ ‘얼’ ‘ ’ , 맺 검  
 . 신 5,000 저 왔 ‘얼’ 결  
 . 왔  
 점 될 념 능

8) 예컨대 이성시(2019)에서는 동아시아의 고대사 기술에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욕망이 어떻게 투사되어 길항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 줄 열  
 찾 ” . 즉, 5,000 무쌍 흥망 쇠  
 , 월 무 길 오래 ‘혈’  
 란 , “ 슬 슬 던 ” 건 “  
 던 씨 ” 건 득 돌 ‘열’  
 ( 2012: 99~101). <오천 열>  
 씨 ‘열’ 취 탐 습 드  
 . ‘열’ ‘ 습’ 온 드  
 1차 ‘ 왜곡’ ,  
 신 팔린 습 드 못  
 . ‘열’ 취 찾 습 복  
 드 ‘옛 ’9) 증 복

게다가 소중화주의에 빠진 우매한 유학자들은 조선의 고유한 풍속들을 모조리 나쁘게 여겨서 삼국사기 가 지어지던 때부터 혁거세를 중국의 후예로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도 우리의 단군조선 이래의 옛 우리말들은 오랑캐 말로 치부하며 이를 고증하려는 일조차 부끄럽게 여겼다. (정인보 2012: 142. 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단군설화는 그야말로 온갖 곡절을 다 거쳐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 사이에 실제의 사건에 허구적 상상이 보태지고 허구이면서도 구체적인 시대와 지역을 따르거나 많은 이이야기들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거기다가 옛 우리말이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도 때로는 유가, 때로는 도가, 또 때로는 불가 하는 식으로 종교에 따라 수시로 멋대로 꾸며지면서도 속 고갱이는 수백 번의 단련을 견뎌 낸 순금처럼 곳곳하게 존재하면서도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더욱 진실해지는 역사의 원류가 되기에 이르렀다. (정인보 2012: 154)

9) 아래 인용문의 “옛 우리말”은 원문의 “古語”를 번역한 것임. 정인보(1946: 42~46) 참조.

신채호 썩 < (國漢文) (輕重)>(1908) 글 삼  
 ‘ ‘ ‘ 혼’ 잃 버 렷  
 위움 , 노예 될 나 될 나  
 브 . 복  
 살려  
 될 . 대 오랑개  
 혀 증 점  
 신채호 식 받 잘 드 .  
 ‘ 번 더낸 금 곳곳 저운 신 갱  
 입 ,  
 찬 .  
 2장 《삼 》  
 “昔有桓因” “爲帝釋也” , (佛典) ‘釋迦提桓  
 因陀羅’ 줄 ‘釋提桓因’ 던 신  
 입 허  
 장 ,<sup>10)</sup> 입  
 즉, 범 (梵語) ‘釋迦’ ‘能’,  
 ‘提桓’ ‘天’, ‘因陀羅’ ‘帝’ 뜻 , 오래 터 (上  
 帝) 승 왔 브 신 ‘ (鄉札) (傳寫)’  
 래 식 차  
 . 오 려 래 알 , 큼 범  
 옷 채 판 ( 2012:

10)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1894년에 발표한 <단군고(檀君考)>에서 불교가 전래된 4세  
 기 후반 이후, 그리고 단군이 기록된 중국의 유일한 사서인 <위서(魏書)>가 편찬되기 시작  
 한 6세기 중엽 이전에 단군신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신종원 엮음(2009)  
 참조.

127~130).

“朝鮮 言語 漢字 意 或 音 畧 寫錄 漢字 詞稱  
權輿” ‘ ’  입 초  
,  예 “故國壤王 一名 故國川王” “壤’  
鄉札 ‘ ’ (즉 ) 讀 ” ( 1946: 37). 즉, ‘壤’  
‘川’  응  글  ,  훈 ‘ ’  
. 신채호  
‘ (吏讀)’ . 신채호  
‘ ’  쓰  키  넓  차  
(借字)  뜻  뜻 ,<sup>11)</sup>  찬  
‘ ’  장  
,  차  
칭 .<sup>12)</sup>  
‘ ’  쳤  했 ,  
래  허  려  오 ‘  
,  래  려  
뜻  넘  갔  
. 예컨 신  ‘弗矩內’  ‘光明理世’ 뜻  
‘ ’  ‘弗矩內’  
래  려  했던  너무  려  
‘赫居世’  쳐  2  ‘ ’ . 더  
3  래  려  했던  쳐  
’  풀  , ‘高麗’ ‘山高水麗’  온

11) 이에 대해서는 김병문(2020나: 204) 참조.  
12) 정인보가 신채호의 ‘이두’ 대신 ‘항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에 막 시작된 향가 연구에 기인한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郷歌及び吏讀の研究》(경성제국대학)는 1929년에, 양주동의 《고가연구》(박문서관)는 1942년에 발표된 초기 향가 연구의 성과물이다.

예 ( 2012: 128).

		맨	막	당	차
		식	못	채	
	생	키	므	차	
	절	못	.	1	2
예	결	차(音借)	훈차(訓借)	당	
들					
번째		래		입	
		.13) 앞		“昔有桓因”	
	“爲帝釋也”		2	당	
	. 5,000		‘ 얼’	찾	
	(古語) 복				
입	래			, ‘ ,	
				셈 .	
슬	올	갈	‘赫居世’	‘弗矩內’	식 ‘ ,
				저	래
				갖	던
			장	될	
‘ (朝鮮)’	래	알		, ,	
	. 즉, ‘ (朝鮮)’	‘	뜨	땅’(《 승 》)	
	‘	침	’ (김 , 《	혁풍	
(朝鮮沿革風俗考異)》	뜻	풀		‘ ,’	3
당		, 오	터		입
	든	‘朝	‘鮮	뜻 ‘ ,’	찾
얼	맞	알		생	.14)

13) “二期 寫錄 中 더 甚한 것은 詞稱인데 漢字로도 或 儒, 或 道, 或, 佛의 派別대로 各各 그 所主함에 依야 語와 字 類似한 中에서 각기 그 主하는 巴로써 牽合하는데 佛家 1 가장 盛하되니만치 가장 더 甚하얏섯다.”(정인보 1946: 37~38)



칭  
 키 , 즉 “管屬 土境” 뜻  
 . 당 위 (小國) 괄  
 “大一統 結構” ‘ ’ 름  
 , ‘ ’ 래 ‘ ’  
 신 장 .  
 ≪ (史記)≫, ≪ (孔子家語)≫, ≪ 례(大戴禮)≫, ≪ (淮南  
 子)≫, ≪ 책(戰國策)≫ 장 ‘식신(息愼),  
 신(肅愼), (朝鮮), 신(稷愼)’ “ 轉譯”, 즉 래  
 생  
 . 장 ‘식신, 신, 신, ’  
 , ‘肅’ ‘須’  
 . ‘ ’ , ‘ ’ ,  
 (原意) 혀 ‘ 신, 식신, 신’  
 칭 래 ≪ 류 (滿洲源流考) ≫ 풀 ,  
 ‘ ’ 래 던 왜 ‘ ’ 당  
 . 건 (乾隆帝) 찬 했 ≪  
 류 ≫ ‘ 신’ ‘ 신(珠申)’ (漢人)  
 ‘ 신’ ‘식신’ 했 ,  
 ‘ 신(珠申)’ “所屬”, 즉 ‘ ’ .15)  
 결 ‘ ’ , 장  
 ‘ 신, 식신, 신’ 더 빌려  
 , ‘ 신’ 래 ‘ 신(珠申)’ ‘所屬’ 뜻  
 갖 던 .16) 결

14) 아래에서 인용되는 ‘조선(朝鮮)’에 대한 설명은 정인보(1946: 51~52) 및 정인보(2012: 157~161)에서 다루어진다.  
 15) 정인보가 인용한 ≪만주원류고≫의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國初, ‘舊稱’所屬曰‘珠申’亦即 ‘肅愼’轉音, 漢人不知原委, 遂歧而二之, 猶之或爲‘稷愼’, 或爲‘息愼’, 其實一也.”

달 , ‘朝鮮’ 식 터  
 던 점,  
 찾 점 ‘ ’ ‘  
 뜨 땅’ 식 했던 점 드 난 .

(이전의 학자들은 인용자) 조선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말로 부른 것이 먼저인지 한자로 쓴 것이 먼저인지에까지 생 이 미치지 하였다. 또 이것이 정말 우리말로 것이라면 상지에 남은 고조선 언어의 유적( )이 보다 더 원 에 가 다는 정도의 주 들은 시에는 더더욱 기대하기가 어려 다. (정인보 2012: 162~163)

죽 복 ‘ ’  
 래 터, 당 ‘朝鮮’ 무 했  
 못했 , 더 래  
 했 과 ‘ ’  
 쓰 , 죽  
 점 생 차 못했 ‘ ’  
 알 칭 살펴  
 임 . 5,000 저운

16) 양주동은 《증정(增訂) 고가연구》(1965)에서 ‘조선(朝鮮)’의 ‘朝’가 ‘밝’에, ‘鮮’이 ‘새’에 대응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병도는 《국사대관(國史大觀)》(1954)에서 ‘朝鮮’이 ‘아사달’의 한 자 표기인 것으로 보았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조선’이 고어(古語)에서 ‘광명’의 뜻이었다고 풀이하였는데(신채호 2007가: 632), 이보다 먼저 집필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 상고문화사》에서는 ‘朝鮮’이 ‘관경(管境)’의 의미를 가지는 ‘주신(珠申)’ 및 ‘숙신(肅愼)’과 같은 말이라고 보았다(신채호 2007나: 364)는 점에서 정인보의 견해가 후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만, 신채호는 이 ‘관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조선’의 원의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해석에 대해서는 조재형 (2018: 34~40) 참조.



태 (徒太山) ‘歌爾民商  
 堅阿隣’ (歌爾民=長) (商堅=白) (阿隣=山)  
 풀 (2012: 133~135). ‘평 (平壤)’ ‘큰 긴 드넓  
 음’ ‘별’ ‘류(沸流), 낙  
 량(樂浪), (不耐), (國內)’ ‘별’ ‘  
 임 앞 .  
 당  
 쟁 ,  
 결 북 활  
 . 즉, ‘ (箕子)’ 무 ‘ 범 (洪範九疇)’  
 (封) , ‘ , ‘ , ‘  
 뜻 ‘임검= 검(王儉)’ ‘검’  
 름 . 즉 ‘ , ‘ , ‘ , 더 ‘儉’ ‘險’  
 던 ‘검’ 던 절 약 결  
 , 러 ‘ (蓋牟城)’ ‘ , ‘검’  
 , ‘ , ‘ , 줄 ‘ (蓋州)’ , ‘ 평  
 (蓋平縣)’ ‘ , ‘ (解夫妻)’ ‘ (解慕  
 漱)’ ‘ , ‘ , ‘ , 찬 식  
 ‘검’ ( 2012: 180~185).  
 삼 (三韓) ‘韓’ ‘ , ‘임금’ 뜻 ‘ ,  
 ‘汗’ ‘干’ 던 ,  
 ‘검’ 래 ‘ , ’ 둔  
 신채호 받 .  
 던 삼 터  
 ‘ 삼 ’ ( 2012: 204~206).  
 당 생활 , 예  
 ‘음 (挹婁)’ ‘ (鴨盧), 오 (奧婁), (懿路)’  
 , < 류 >  
 뜻 ‘ 류(葉瑠)’ ‘음’ . 음



장 신채호  
 ‘평’ ‘壤’ 당 신채호  
 저온 ‘평’ ‘壤’ ‘壤’ 신채호 .18)  
 입 신채호 혀  
 복  
 신채호  
 점 신채호 1924 10월  
 3월까 <> < 초>  
 책 첫 장 < > , ,  
 복 글 .19)  
 신채호 ‘ -알 ’  
 1920  
 점 . 즉, < 초>  
 몽골 결 찾  
 많 , 신채호  
 ‘ , ‘ , ‘ ,  
 될  
 더욱 신채호 ‘ , , 몽골 , 터키 ’  
 ‘ (同語係)’ 점 ‘ , , 몽골, 터 ’ 네  
 ‘ 혈 (動血族)’ 결 까 달 (신채호  
 2007 : 622).  
 ‘ 알 ’ ‘ ,  
 ‘ , ‘ , ‘ 노 ’ 류 ,  
 ‘ , ‘ , , 몽 , 쓰’

18) “壤을 ‘라’로 읽을 것은 (本申丹齋說) 자못 推斷할 수 있나니”(정인보 1946: 40).  
 19) 이에 앞서 1923년 상해에서 발행된 정운의 <사지통속고(史誌通俗考)>(三一印書館)에는 고대의 ‘국호, 왕호, 인명’ 등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고유어로 복원하였는데, 같은 해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기도 하였다.

식 (신채호 2007 : 632). ‘ (我) (非我) 쟁  
 , 신채호 (‘ ’) 당  
 알려 던 입 .  
 1890 터  
 활 20) ‘ -알 ’ 력  
 1910  
 < >(1915) < >(1922) 글  
 (金澤庄三郎) 키 (白鳥庫吉)  
 ‘ -알 ’ 입  
 점 잘 .21) 당  
 ‘ ’ 류 찾 활  
 레 ≪ (不咸文化論)≫(1927) . 즉  
 ‘태 , , 장 , ’ ‘ ’  
 ‘ ’ , , 칭  
 신 (神山) , 즉 신 승 초  
 알려 . 더 ‘ ; ‘ ,  
 ‘ ’ “ ‘p’ (轉音) , 八  
 취” ‘ ’ ( 2008: 47),  
 (巨山) 림  
 . 결 ‘신 (神山)= ’ 승 생활  
 권, 즉 ‘ ,  
 권 , 입증 줄  
 ‘白’ 복 낸 ‘ ’ 응  
 규 키 ‘ (轉音)’ .22)

20)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어 계통론에 대한 연구는 송기중(2003: 59~79), 이상혁(2016) 등을  
 을 참조할 수 있다.  
 21) 안확의 <조선어 원론>은 그의 ≪조선문학사>(1922)의 ‘부편(附編)’으로 실려 있는 글이다.  
 신채호 역시 ≪조선상고사>에서 시라토리 구라키치나 도리이 류조(鳥居 龍藏) 등의 조선사  
 연구나 한국어 계통론을 언급하고 있다.

‘p’ ‘ハ’  
 능 혀 당  
 점 , 입 초 찾  
 터 <>  
 > 펼 장 저 <>  
 . 더 1925 씨 27  
 <> > 결 복 ,  
 식 래  
 입 초 습 려 했 점 .  
 1920 신채호 큰  
 차 궤 .  
 류 점 및 입  
 님 권 했던 신채호  
 점 했 디까 ‘ ’  
 점 들 차 . 더  
 피 궤 달 . 신채호  
 << 초>> << >> , << >>  
 씨 1920 터 30 초 황  
 던 .  
 복 알 던  
 , 더 초 노력 .  
 5,000 저온 ‘ 일’ 찾 려  
 찾  
 점 앞 신채호 흐름  
 장 복 려 노력

22)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에 사용된 언어학적 방법론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김병문(2020가) 참조.



초 했던 , 즉 초 겐 식  
 디 까. 래 5,000  
 저온 ‘ 일’ 앞 활  
 했 , ‘5,000 일’ 능했  
 까 점 돌 .  
 1930 께 ‘ ,  
 ‘ , 신  
 던 ‘ 증 ’ 길 던점,  
 ‘ 식’ 장  
 ‘ , 관 했던  
 잘 알려져 .<sup>23)</sup> <오천 일>  
 던 1930 황 입장  
 ‘ , 던 .  
 ‘ , 극 ‘일’ 란 증  
 받 질 녘 . ‘5,000  
 일’ 오 려 1910 황  
 던 ‘ (國粹)’ ‘ 혼(國魂)’  
 .<sup>24)</sup>  
 앞 1900 초 장 ‘ ,  
 규 합 ,  
 1905 ‘ , 혼 . 던 1910 까  
 위 점차 ‘ , ,  
 ‘ , 획득 .<sup>25)</sup> 즉 , 려

23)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을 둘러싼 당대의 사상사적 학술사적 지형에 대해서는 방기중(1992: 101~125), 이지원(2000), 신주백(2011) 등 참조.  
 24) 이 ‘국수’는 본래 고유한 일본 정신의 회복을 주장한 일본의 국학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며, 이러한 일본의 국학이 양계초에 의해 중국에도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병구(2017), 김윤경(2019) 등 참조.  
 25) 이에 대해서는 권보드레(2007), 윤영실(2018: 123~136) 등 참조. 특히 윤영실의 논의에서는 ‘조선’이 민족의 고유 명칭으로 발견되고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님  
 갖 ‘ , ‘ , ‘ 혼’  
 증 줄 님 름  
 . 예컨 입 ‘ , ‘ 혼’ 잃 버  
 했던 신채호 < (國粹保存說)>(1908) 글  
 “歷史的 傳來 風俗 慣習 法律 制度 等 情神” 규 ‘ ,  
 , < (大我) (小我)>(1908)  
 약 받 ‘ (小我), (假我)’ 무  
 ‘ (大我), (眞我)’ 복  
 ‘ ’란 질 신 ‘ ’란 신 혼  
 . 잘 알려 식 < (韓國痛史)>  
 (1915) ‘혼 (魂魄)’ 님 차 ‘ 곡(錢穀),  
 , (城池), , ‘ (魄)’  
 (國教), , , ‘ 혼(國魂)’ 살  
 망 장 .26)  
 래 5,000 온 ‘ 일’  
 찾 를  
 망 초월 온  
 신 . <오천  
 열> 1장 “  
 열 킨 .”(  
 2012: 55) ‘일’ 신 했 .  
 “ 합당 당 ‘ 신 ’  
 ‘ (良知)’ 님 ‘ ,  
 능 ‘ 신 ’ ‘일’ 규 했 ( 2012: 65).  
 령 초 신 ‘일’ 신채호 ‘ (我),

26) 이때의 ‘국교(國教)’는 국가의 종교를 뜻하는 것으로 박은식의 입장에서는 단군교, 대종교를 가리킨다. 정인보의 ‘일’과 ‘국수, 국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난수(2019) 참조.

식 ‘혼(魂)’ 했던 차 까 . “ 신  
 무 혼  
 신 ” “ 무 7  
 왜 ” ... 무  
 ” ( 2012: 71).  
 질 신 찾 차 점  
 ‘얼’ 신채호 식 ‘ ’ ‘ 혼’ 념  
 질 .27)  
 1910 신채호 식 래 저  
 온 ‘ 혼’ ‘ ’  
 던 1920 앞 살펴 신채호  
 초월 했 ‘ ’  
 름 점 . <오천  
 얼> 흐름 파 .  
 금까 살펴 5,000 온 ‘ ’ ‘ 혼’, ‘얼’  
 예 ‘ ’ 활 .  
 식 ‘ 혼’  
 , ‘ ’ ‘ 혼’ 던 1910  
 ‘ ’ 획득 던 점  
 ‘얼’ ‘ ’ 초 터 될 념  
 능 . 장 려 식  
 ‘ ’ 려 천 살펴 겠 .

27) 정인보는 《양명학연론》(1933)에서 양명학이 심학(心學)이며 이때의 심(心)은 ‘본심. 본밀 마음’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본심을 통해 대상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감통(感通)’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개인의 ‘얼’이 민족의 ‘얼’로 확장되는 것은 바로 이 ‘감통’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난수(2019) 참조.

4. ‘열’, ‘열’, ‘열’

신채호 잃 버린 ‘ (國粹)’, ‘ 혼(國魂)’  
 복 곶 맷 , ‘ , 혼’  
 태 ‘ (郎家思想)’ .  
 신 량 , 려 (皂衣) 결 ‘  
 ’ 신채호 ≪ ≫ “檀君 더 려오든 宗教  
 魂 오 國粹 中心” (신채호 2007 : 377). 난  
 김 식 무  
 ‘ , ’ 살 신채호 ‘ ’ ‘ 혼’ 복  
 름 던 . 앞  
 신채호 ‘ ’ ‘ 혼’ ‘열’ 념 했던  
 , ‘오 ’ 터 저운  
 신 찾 취 ‘ ’ ‘ 혼’,  
 ‘ ’ ‘열’ 더 합 겠 .  
 ‘열’ 신 복 신  
 점 닐 . 예컨 (1962: 279~281)  
 “ 무 레 ” ‘열’ ,  
 ‘열’ ‘혼(魂)’ 잘못 , ‘열’ ‘열’  
 오 려 ‘迷, 狂’ ‘ - ’ 온 능 ≪ 천  
 ≫ ≪ 혼몽 ≫ .  
 (2008) ≪ ≫(1920), ≪ ≫  
 (1938) ‘열’ ‘열’ ,  
 28) ‘열’ ‘열’ , 열 ’ ‘열’ ‘ ’ 키  
 입장 . ‘열’ 래 입장

28) 1920년의 총독부사건에서는 ‘열빠지다’가 ‘열빠지다’와 동의어로 풀이되어 있고, ‘열’이 ‘정신, 혼’의 의미로 뜻풀이 되어 있다. 1938년의 문세영 사건에서는 ‘열’을 처음으로 표제어로 올리고 ‘정신, 혼, 열’과 같은 말로 뜻풀이 하였으며 ‘열빠지다’의 동의어로 ‘열빠지다’를 보였다.

점 , 잘못 신 점  
 큼 . 흥  
 점 “‘얼’ 장래” .

‘얼’이 들어진 임이 진 이상, 이것을 계속 인정하여 국어사전에  
 로 린다는 것은 어 모로나 부 한 일이라 아 수 다. ‘얼’  
 은 은연중 의 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 다. 지금도 이 말을 기를 리는  
 사 이 적지 다. 이 말은 그 안 를 비 한 일부 인사들의  
 를 아 지 아 도 에 을 린 상태라고 수 있 다.  
과거와 리,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 국어원이 있 다. 국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른 처 을 수 있는 기관입 다. 저는 이 기관에서 ‘얼’  
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주기를 다. 예사로 말이라면 그 어 수  
 도 있지 , 로 ‘정신의 대’를 가리 는 말이라 마 고 있을 수가 기  
 때문입 다. (이기문 2008: 459~460)

증 글 무 , ‘얼’ ‘예  
 , 글  
 ‘결’ . 잘못 신  
 당 받 피  
 ‘ , 식 임 을  
 평 , ‘얼’  
 ‘결’ 럽 짐  
 . 났 , 금까  
 < > ‘얼’ ‘신’ 뜻풀 께  
 올려 .  
 ‘얼’ ‘  
 룬’ 결 알 . ‘결’  
 권 갖 책  
 .29) ‘ ,  
 신 맺 ‘

, 식  
 , 및 찬  
 신채호 ‘ ,  
 ‘ 혼’ 복, 던 .30)  
 당 들 했 . 예컨 1907  
 《 》 린 태 < > 글 ‘ ’ ‘ (國  
 是) , ‘ 입’ 결  
 , 및  
 찬  
 1910 《 》 펴낸 살펴 , ‘  
 , 당 , 황 맺  
 알 . 1897 4월 《 신 》 < >  
 ‘ , 습득 찾  
 던 , 1907 4월 《황 신 》 < (必尙自國文  
 言) 글 ‘ , ‘ ,  
 글 못 더 려  
 노력 입장 피력 . 1897 생활  
 생활 습 1910 까위  
 글 차 파  
 . 당 . 봉  
 ‘ , 1905 글 열  
 월 ‘ ’ 씨 장 , 1906

29) 가스야 케스케(2016: 24~27)는 일상어의 중요성에 다 같이 공감하는 근대의 언어학과 근대 국민국가의 언어정책이 일정한 ‘밀통 관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근대 이전의 문헌학이 고대어로 쓰여진 문헌 해석에 집중했던 데 비해 근대 언어학은 사어(死語)가 아닌 일상의 ‘살아 있는 말’을 진정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처럼, 근대 이전의 국가들이 민중의 일상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가지 않았던 데 비해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표준어의 통일과 보급을 통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상어를 국가적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근대 언어학과 근대 민족국가의 언어정책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30) 대한제국의 학부에 설치된 국문연구소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07년 7월의 일이다.

초점

‘ ’ 장 .31)

관 태 (太古) 터 저 려운 든

. 앞 1907 <

> 획

무 살

생 날 , 당

넘 훨씬 터 온

은 . 더 《 》

1910 ‘ ’ , ‘ ’

래 저 온 임 .

이 을 하여 의 에 의 을 하고 의 에 의 을  
 하게 이라 로 은 의 요 은 의 요 은 의  
이라 은 에 하여 으로 한 이 하고  
으로 한 가 한 에는 이 이요 은 를  
하고 은 라 이 을 하고 을 하고 을  
하매 에서 이 을 하여 를 하고 로 을 하여  
에 하더 를 하여 이 하신 로 한 를  
에 하 는 의 라 (주시경 1910: 1)

‘ ’란

살던 달 번

. ‘ ’ (檀聖), 즉 란

신 래 ‘신 (政教)’ 천 온

31) 근대계몽기의 국문 관련 논의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김병문(2019: 29~50) 참조.

식 ‘ ’ ‘ 혼’ , ‘신 ’란 신채호  
 ‘얼’ 림 .  
 래 터 ‘ ,  
 점 ,오천 무 흥망 쇠  
 저 온 ‘ = 혼=얼’ 《 》  
 ‘ ,  
 ‘ , ‘ 혼’  
 ‘ ’ 결 .  
 신 식  
 (2006) ‘ ’ 념  
 신 식  
 ‘ ’ 맞 노력  
 “ ○○ ‘ ’ 침  
 반 식 “터” , 즉 “  
 ” ‘ ’란 ‘ ’  
 터  
 (2006: 15~16) , ‘ ’  
 식  
 , 신 능  
 , , 혀 점 ‘  
 , ‘ , “ 식 쌍생 ”  
 . 황 려  
 능 .  
 《 》 < > 달 책  
 ‘ 난갈’ ‘ 들갈’ ‘ ’ 류  
 , 능 열 류 될  
 색채 혀 .  
 글 까 . 점



황 (2016) ‘ , ’ 점 .  
 식 , ’ 란 ‘  
 ’ 생 , ’ 황 려  
 태 , ’  
 , ’ 찬 .32)  
 념 럽  
 , ’ 터 ‘ , ’  
 ‘ , ’ 식 매  
 맺 .  
 결 , 《 》 ‘ ’  
 은  
 은 들  
 . 앞 <  
 > 풍 풍  
 풍 질 생 난 .33)

32) 가스야 게스케(2016: 183)에 따르면 ‘내가 어떤 언어를 말한다’는 명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일 뿐이며, 그 신념을 진리로 간주하게 될 때 비로소 그 X어라는 대상이 사회적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즉 “‘X어’라는 대상의 자명성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언어학을 포함한 ‘X어’에 대한 허다한 담론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X어의 등질성’이라는 관념 역시 “X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 담론의 등질성이 낳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가스야의 설명이다.

33) “天下區域及人種之不同 / 然而 天下列國의 言語가 各各不同하니. 此는 地球上에 陸地가 天然으로 分界하여 五大洲가 되고 五大洲가 又分하여 山岳이나 江海의 限界로 天然의 區域을 成하니 人種도 此를 隨하여 黃白黑棕赤五大種이 天然으로 各殊하고 五大種이 又分하여 其居住하는 區域되로 各異하더라.

隨區域人種之不同而文言亦不同 / 人種이 各各天然으로 句別된 地方의 水土 風氣를 稟하여 生호니. 言語도 各各 其域 其種의 適宜호되로 自然發音되어 其音으로 物件과 意思를 命名호야 其同域 同種內에 通用호는 言語가 되고, 又 各各 此에 適宜호 文字를 制用호니 是以로 天然의 의 各殊호 句域과 人種을 隨아 言語와 文字도 天然의 不同호더라.” (주시경 1907)



‘얼’

초월

, ‘ ’ , 던 .

5.

, 차 념 . 신채호 식,

’ 식 ‘ ’ 터 저운 려

못 . ‘ ’ , 식임 . 즉 식 차 살펴

식 , 식 (共時的) ‘ ’ 식 , (通時的) ‘ ’ 식 터 ,<sup>35)</sup> 터 식

. 래 위 까 저왔 식 , 래 려 려 금 쓰 식

무 . 팔 ’ 찬 매 천 했 . 찬 많 침 천 (

35) 이를 야스다 도시아키(2009)는 공시적인 ‘언어의 구축’과 통시적인 ‘언어의 구축’으로 개념  
회환 바 있다.

더 )            왔    식            생    날  
 .            ‘            ,            입증  
                   했 .            ‘            ,            갖    못했  
                   식    앞    살펴            ‘            ,            ‘    혼’    복  
 장    던            황            던            .            ‘            ,            ‘    혼’  
                   더            .            ‘    일’  
                   .            ‘            ,            ‘            ,            ‘            ,            ‘            ,            점            려  
                   점    알    듯    ‘            ,            혼,  
 일’            념    태            력            력  
                   .            점    ‘    일’            오            난  
                   ,            임  
 식            극복            식            .

## 참고문헌

[자 ]

- 박은식(1998), 한국통사 , 기 관.  
 박태서(1907), <국어유지 (            )>, 야 1.  
 신채 (1908가), <국한문(            )의 경중(            )>, 대한매일신보 , 1908.3.17.  
 신채 (1908나), <국수보존설(            )>, 대한매일신보 , 1908.8.12.  
 신채 (1908다), <대아(            )와 소아(            )>, 대한매일신보 , 1908.9.16.~17.  
 신채 (2007가), 조선상고사 , 단재신채 전집 1 , 기 관.  
 신채 (2007나), 조선상고문화사 , 단재신채 전집 3 , 기 관.  
 안 (1915), <조선어의 가치>, 학지광 3.  
 안 (1922), <조선어원 >, 조선문학사 , 한일서 .  
 정윤(2020), 정재 김, 사지통속고(            ) , 우리역사연구재단.  
 정인보(1935), <오천 년간 조선의 얼>, 아일보 , 1935.1.1.~1936.8.28.  
 정인보(1946), 조선사연구(상) , 서 신문사.

정인보(1947), *조선사연구(하)*, 서 신문사.

정인보(1983가), *조선사연구(상)*, 담원 정인보 전집 3,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인보(1983나), *조선사연구(하)*, 담원 정인보 전집 4,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인보(2012), 문성재 역주, *조선사연구 오천 년간 조선의 얼(상)*, 우리역사 연구재단.

정인보(2013), 문성재 역주, *조선사연구 오천 년간 조선의 얼(하)*, 우리역사 연구재단.

주시경(1897), <국문 >, 신문 . 1897.4.22.~24.

주시경(1907), <필상자국문언( >), 성신문 , 1907.4.1.~6.

주시경(1909), 국문연구안 , 김민수 음(1992), 주시경전서 2 , 출판사.

주시경(1910), 국어문 , 김민수 음(1992), 주시경전서 3 , 출판사.

최남선(2008), 정재성 이주현 역주, 불 문화 , 우리역사연구재단.

[논저]

가스야 게스 (2016), 고영진 진의 김, 언어 게모 력: 언어사상사적 접근 , 소 출판.

국학연구원(2005), <정인보>, 연세국학연구사 , 344~359, 연세대학교 출판부

보 (2007), <근대 기 '민족' 의 변화 1905~1910년 대한매일신보 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33, 188~212, 민족문화사학회.

김병구(2017), <근대계 기 민족주의 성의 아이 신체 의 국수 이 을 중심으로>, 우리말 72, 229~258, 우리말 학회.

김병문(2019), '국어'의 사상을 어선다는 것에 대하여 , 소 출판.

김병문(2020가), <최남선의 >을 통해 본 고대사 들기와 역사비교 언어 학의 관계>, 대 문화연구 , 329~358, 성 관대 아시아학 원.

김병문(2020나), <신체 의 고대사 기 에 사용 언어학적 >, 한국학 연구 59, 199~22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김윤경(2019), <근대 아시아 지평에서 본 정인보 '조선학'의 사상적 대>, 양 학 53, 249~288, 한국양 학회.

류시현(2019), <정인보의 조선 유교와 한국 고대사 인식 오천년간 조선의 얼 을

- 중심으로), 공존의 인간학 2, 103~138, 전주대 한우고전학연구소.
- 기중(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기중(2003), 역사비교언어학과 국어계통, 집문.
- 신종원 음(2009),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 신주백(2011), <1930년대 중 조선학 학의 재구성 과 관련한 시 적 경성 제대 자의 조선연구 태도 및 연구 과 관련하여>, 역사문제연구 26, 85~109, 역사문제연구소.
- 야스다 도시아 (2009), 이진 이이다 사오리 김, 언어 의 구 과 식민지 조선, 제이 .
- 양주 (1962), <‘얼’이 말에 대하여, 그 조어>, 국학연구논고, 을유문화사.
- 윤영실(2018), 최남선과 식민지의 민족사상, 아연출판부.
- 오영교(1994), <정인보>, 조 한영우 박 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172~181, 작과비평사.
- 이기문(2008), <‘얼’에 대하여>, 서 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음, 이 현대국 어학의 자, 449~461, 태학사.
- 이 수(2019), <조선의 정신, 그 정체성에 대한 근대적 신체 의 ‘야’와 박은식의 ‘국 ’ 그리고 정인보의 ‘얼’을 중심으로>, 양 학 54, 31~74, 한국양 학회.
- 이 (2008), <위 정인보의 한국 고대사 인식>, 학지 141, 1~49, 연세대 국학연구원.
- 이상혁(2016), <근대 기 영문 지에 나타 서양인의 ‘조선어’ 인식에 대하여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n Review를 중심으로>, 한국인 사연구 25, 185~212, 한국인 사연구회.
- 이성시(2019), 박경희 김, 투 의 으로서의 고대사, 삼인.
- 이연숙(2006), 고영진·임경화 김, ‘국어’라는 사상, 소 출판.
- 이 재(1993), <정인보의 한국사 인식>, 한국사상사학 5, 471~491, 한국사상사학회.
- 이지원(2000), <1930년대 ‘조선학’ 논 >,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음, 논 으로 본 한국 사회 100년, 132~137, 역사비평사.
- 조재 (2018), <고조선어 연구사>, 북아역사재단 북 사연구소 음,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19~120, 북아역사재단.

천관우(1986), <정인보의 사학>, 한국근대사 , 277~292, 정음문화사.  
이 (1968), <위 정인보>, 한국사의 , 313~325, 구 .

## 김병문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pourm@yonsei.ac.kr

- : 2021 8월 1
- : 2021 8월 13 ~8월 28
- : 2021 9월 1